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이용 유형이 이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하승태** · 이정교***

초 록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현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응답자들은 정치 및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위해서 면대면 대화보다는 다양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수단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이용 수준은 정치사회적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보다 진보적 정치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이들의 정치적 참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정보습득과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의식과 참여를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정치사회적의식, 정치참여, 매스커뮤니케이션, 대인커뮤니케이션, 인터넷

* 본 연구는 2010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박사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00431).

**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전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sthaha@naver.com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jglee@khu.ac.kr

I. 문제제기

그 동안 청소년층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적 참여에 관한 문제는 이들이 주로 선거 투표와 같은 제도권 정치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관여에 대한 연구수준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그 격차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민영·노성중, 2011). 그러나 청소년기는 무엇보다 정치 및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과 참여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향후 이들의 정치적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층의 정치사회적 참여는 소셜 미디어와 웹2.0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배경으로 비제도권 영역에서 상당부분 활성화되고 있다(김예란 외, 2010; 이동후, 2009; 이창호·정의철, 2009).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5월 촉발된 수입반대 촛불집회에는 상당수의 10대 청소년들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요구는 무척 현실적이었으며 구체적이었던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즉,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급식 사용 반대가 직접적인 집회참가의 이유였으며, 더불어 정부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중요한 참여 동기로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정치사회적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서의 의견표출과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층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목소리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낮은 풍경이 아니며, 이제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하겠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청소년층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는 이들이 이용하는 미디어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SNS를 위시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급격한 정보의 확산,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강화,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 현재 청소년들의 의사소통문화는 왜 우리가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의 이용이 청소년들의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박소라, 2005; 박소라 외, 2004)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는 정치사회적 의식과 관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민영·노성중, 2011). 그 동안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연구는 특정 미디어의 이용중독과 같은 부정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왔지만(정태환, 2005),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문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의한 정치사회화의 순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유형 및 수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미디어 이용이 이들의 정치사회적 관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이러한 청소년층의 정치참여에 대한 몇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직 일반화된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절대적인 연구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미디어 이용 양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디어 이용이 이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정치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전통적 미디어 및 인터넷 이용을 포함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크게 나누고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정치사회적 정보습득과 의사소통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둘째, 미디어를 통한 정치사회적 정보습득과 대인관계를 통한 정치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양태가 이들의 정치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9년 「청소년 사회의식 조사」라는 이차적 여론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해당 조사 자료는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대한 설문문항뿐만 아니라 이들의 미디어별 이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II. 문헌 고찰

1.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의사소통 환경 변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은 과거에 비해 우선 그 양적 측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 왔는데 이는 특히 뉴미디어의 이용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분석결과를 보면 10대와 20대가 99.9%의 이용률을 보여 여타 연령그룹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사용빈도를 보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나아가 SNS이용률에서도 이들 청소년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현격히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9명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NS의 주된 이용 동기로는 친구 및 취미/여가 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문 정보나 지식공유, 자기표현, 그리고 시사/현안 문제 등에 대한 의견표현 및 공유도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뉴미디어의 등장 이후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사소통유형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세와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가장 친숙하고 접근 용이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의 경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뉴미디어 환경은 이미 존재해 왔던 것이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태도와 행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뉴미디어가 가져다주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제한적인 기성세대에 비해 청소년들은 이를 수용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탁월한 감성적,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류춘렬, 2006). 특히 오늘날의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상당부분 미디어를 통해 이슈화되고 관련정보들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분명한 사회적 주체로서 혹은 네티즌(netizen)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적, 제도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온라인 미디어 공간을 통해 이들은 스스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전개해나감으로써 기성세대와는 분명 차별화된 정치사회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청소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뉴미디어 환

경에서의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특히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보다 회의적이며 무관심한 태도가 이들의 정치에 대한 불관여나 불참여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Phelps, 2004; Zukin et al., 2006). 단지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정치적 관여에 매료되지 않을 뿐이며 이들 나름대로의 정치사회적 문화를 형성해감으로써 기성세대와는 상이한 정치적 관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Dunleavy, 1996; Livingstone et al., 2005; Phelps, 2005; Russell, 2004).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바라보는 관점의 틀 또한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치적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정치 투표에 참여하는지 등, 정치 참여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으로 확립된 측정 수단으로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삶과 분리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Zukin et al., 2006). 해리스(Harris, 2008; Harris & Younes, 2008)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관여 문화를 ‘온라인 자기주도 문화(online DIY cultures)’라고 언급하며 청소년들은 형식적인 정치로 부터의 소외와 이에 대한 반감의 결과로서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웹진 등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소통과 의사표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관찰했다. 사이버상에서의 새로운 참여 커뮤니티의 형성과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 공중의 등장은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관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기성세대의 경우, 특정 규범과 원칙에 따라 사회를 재단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적 정치시스템인 정당이나 선거와 같은 정형화된 형식을 통해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왔다. 반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일정한 틀보다는 각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위협한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자아실현적 시민(self-actualizing citizen)’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Bennett et al., 2009).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 주체로서의 이러한 특성은 미디어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환경에서 더욱 촉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나 주요 선거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쟁점사안과 관련해 단순히 순종하고 따라가던 기성세대의

정치참여행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향후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2. 뉴미디어와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청소년층은 전통적인 매체인 TV나 신문 등을 이용해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인터넷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유선영, 2008).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들의 뛰어난 인터넷 활용능력과 사이버 상에서의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자발적 응집력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2002년의 월드컵 응원문화, 2008년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에서부터 최근의 10·26재보선에서의 서울시장 선거, 한미FTA반대시위 등은 청소년 및 청년층이 온라인상에서 발휘하고 있는 정치적 위력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활동은 가상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정태환, 2005). 정치성이 짙은 집회에 참석하거나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분명히 나타낸다. 이른바 ‘나꼼수’ 콘서트의 입장권 매진 사태는 청소년층의 현실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예시하고 있다. 10대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도 기존 사회적 인식과 달리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유선영, 2008). 특히, 중학생들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오히려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나 카페활동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소통망의 주도적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치적 목소리를 거침없이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의 자유는 국가적 통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개인은 매스미디어의 수동적 소비자(consumer)와는 달리 독립적인 프로슈머(prosumer=producer+consumer)로서 그리고 집단적 정치세력으로서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정치사회적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뉴미디어는 이용자들의 시공간적 개념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과거와는 다른 정치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SNS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관점들이 소통되는 의견의 집합체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정치변화의 가능성을 엿봄과 동시에 정치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Juris, 2008).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더 이상 따르고 준수해야할 규범이 아니라 향유하고 혁신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인 것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따라서 보다 능동적이며,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특성을 띄게 된다. 주리스와 플레이어스(Juris & Pleyers, 2009)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참여를 '대안적 행동주의(alter-activism)'라 부르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수평적이고 조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안적 가치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행동주의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과정은 결국 자아의식과 사회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치사회화의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김호기, 2008).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정보습득과 의사소통의 중요한 통로인 미디어는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정치사회적 관여

2008년 미국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단번에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등장시켰다. 휴대폰과 같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 광우병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들을 소통하고 공유했으며, 획득된 정보들을 다시 또래집단 사이에서 확대재생산 시켰다.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토론사이트를 통해 촛불시위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정치 담론들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예란 외, 2010).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확산은 곧 공중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 특히 제도적 정치권에서 소외된 청소년층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고 나아가 정치적 참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Dahlgren, 2003).

실제 청소년들이 정치적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는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영국(Livingston & Bober, 2004) 및 동아시아 국가들(Lin et al., 2010)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주요 도시의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가 공적 웹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으며, 65% 정도는 인터넷 뉴스를 읽으며, 온라인 투표나 서명과 같은 정치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영·노성중, 2011).

미디어 이용이 정치참여를 획일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후속적인 인지적, 행위적 측면에서의 정치의식 및 참여와의 관련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Berman & Weitzner, 1997; Johnson & Kaye, 1998; Roberts et al., 2002). 기본적으로 미디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의제를 전파시킨다. 정보의 습득 역시 과거의 일방향적 전달이 아니라 주체적인 검색과 선택을 통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뉴스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의도 역시 수용자의 다차원적인 정보의 이용을 통해 상당부분 희석되고 있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수용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며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정보전달자의 통제력은 크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수용자는 주체적으로 정보를 해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수용자의 정치지식을 확대시킴으로써 정치사회적 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Johnson & Kaye, 1998; 2004). 정치적 정보의 확대는 개인의 정치적 관심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Althaus(1998)는 유권자가 정치적 토론과 정보 습득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과거 보다 훨씬 더 진보적 정치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나아가 정치적 정보습득과 대화의 증가는 정치적 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함으로써 미디어 이용자는 보다 조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Berman & Weitzner, 1997). 2002년 미대선 경선을 배경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유권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촉진한 바 있으며, 유사한 현상은 2008년 미대선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박근영, 2008). 특히, 인터넷의 이용목적이 정보탐색이거나(Shah et al., 2001), 정치적 토론 참여과정을 거치는 경우(Eveland et al., 2003), 해당 미디어의 이용은 정치참여를 보다 촉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경우, 2008년에 촉발됐던 촛불문화제 역시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을 통한 정치참여 증대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이효성, 2008). 한편, 전통적 매체를 통해서도

정치참여의 증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otirovic과 McLeod(2001)는 개인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별적이기는 했으나 분명 신문열독은 각종 공청회, 청원, 지역문제해결 등 정치사회적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미디어의 이용은 전반적인 수용자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이 즉시성과 상호작용성이라는 그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이른바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낙관론(Delli Carpini, 2000; Dahlberg, 2001; Lewis, 2005; Montgomery et al., 2004)과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기존 정치참여자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젊은 층과 같은 정치소외 계층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Livingstone & Bober, 2004; Norris, 2001; Vromen, 2007)이 그것이다.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의사소통 수단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의제설정에는 기존 정치참여자들이 행사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젊은 층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Lewis, 2005). 또한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인터넷 이용과 정치적 정보습득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Livingstone & Bober, 2004). 이는 오프라인상에서의 기득권 계층이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도 막대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그러나 인터넷은 분명 기존 정치세력과 참여자를 정치적으로 소외된 젊은 공중들과 상호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Brackertz et al., 2005; Collin, 2008; Simpson et al., 2005)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심대한 정치적 정보 전달력에서도 잘 예시되고 있다. 적어도 상호작용성과 접근성이 탁월한 인터넷의 이용은 전통적 매체의 이용과 달리 청소년층의 정치참여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구체적인 미디어별 특히, 인터넷과 전통적 미디어 사이에 어떤 차별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의 비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한 검증도 본 연구에서는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다양한 미디어별 영향력을 보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크게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이용, 전통적 미디어 이용,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 이용으로 나누고 이러한 구체적 정보습득과 의사소통의 유형별 의존 정도를 살펴 보았다. 둘째, 이러한 정치사회적 정보습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용량과 방식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 즉 정치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습득 양태와 정치사회적 의식이 이들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고찰하였다.

청소년 공중들은 향후 이들의 정치사회적 행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선 문헌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습득과 의사소통과정은 이러한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습득 통로와 커뮤니케이션 양태들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연구문제들을 제시한다.

연구문제1: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정보습득과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이용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정보습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용의 유형(대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이들의 정치사회적 의식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정보습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용의 유형(대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이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 방법론

1. 분석 자료

1) 2009 「청소년 사회의식 조사」

이상의 연구 문제들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차적 여론조사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청소년 사회의식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이종원, 2009). 구체적 데이터의 출처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이며, 본 자료는 2010년도에 공개되었다.

2) 조사 개요

2009 「청소년 사회의식 조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의 청소년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고·대학 및 성인남녀에 대해 학생의 지역분포 비율에 따른 지역별 표본 수 할당을 통한 규모비례확률표집(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PPS)으로 조사대상 학교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학교로 부터의 1개 학년을 선정하고 해당 학년의 1개 학급을 선정해 전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9,367명의 유효사례가 표집 되었다. 표집기간은 2009년 7월에서 8월 사이이며, 면접 조사방법으로는 대인면접조사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10대와 20대 응답자 중 주요 연구변인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7,388명(10대 6,117명, 20대 1,271명)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주요 변인 및 측정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양태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기본적 통제변인으로 응답자의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수준을 포함시켰다. 성별은 남/여,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교급 및 학년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은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4학년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하였다.¹⁾ 경제적 수준은 응답자 가정의 경제수준을 매우 못 산다 에서 매우 잘 산다 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²⁾

2) 커뮤니케이션 양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정보와 관련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 방식으로는 크게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특히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전통적 미디어와 인터넷의 뉴미디어로 세부적인 분류를 실시하였다. 우선,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대인관계를 고려해 부모, 형제/자매, 친구/선배, 학교선생님과의 대화 등 총 네 가지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이러한 대인관계를 통해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³⁾

한편, 정치사회적 정보습득을 위한 미디어의 이용 정도는 TV, 라디오, 신문, 주간지/잡지, 그리고 인터넷 별로 나누어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했다.⁴⁾ 나아가, 교급별(중·고·대학)로 대인 커뮤니케이션, 전통미디어(TV/라디오/신문/잡지), 그리고 인터넷의 이용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3) 정치사회적 의식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 즉 진보-보수의 이념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총 10개의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는 설문문항을 제시하였으며 각 문항 별로 4점 척도(1=전

1) 교육수준(응답자의 교급과 학년): 1=중학교 1학년, 2=중학교 2학년, 3= 중학교 3학년, 4= 고등학교 1학년, 5=고등학교 2학년, 6=고등학교 3학년, 7=대학교 1학년, 8=대학교 2학년, 9=대학교 3학년, 10=대학교 4학년

2) 가정의 경제수준: 1=매우 못산다...4=보통 수준...7=매우 잘산다.

3)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면대면 대화의 정도: 1=전혀 하지 않는다, 2=매우 드물게 한다, 3=가끔 한다, 4=자주 한다, 5=매우 자주 한다

4) 정치 및 사회문제 관련 정보습득을 위한 미디어 이용 정도: 1=전혀 보지 않음, 2=보지 않는 편, 3=보통 수준, 4=자주 보는 편, 5=매우 자주 본다

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를 이용해 정치사회적 의식을 측정하였다($M=2.879$, $SD=.425$).⁵⁾

4) 정치사회적 참여

응답자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참여 가능한 총 6개의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행위에 대한 설문문항이 제시되었다. 지난 1년간 정치 및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TV/라디오와 신문/잡지에 의견을 보내거나 글을 투고한 적이 있는지, 인터넷 상에서 관련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지, 인터넷 상에서 관련 서명운동에 참여했는지, 길거리 서명운동에 참여 했는지, 그리고 정치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집회나 모임 등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가 그것이다.⁶⁾ 각 항목은 5점 척도(1=전혀 없다, 5=5번 이상)로 측정 되었다($M=1.306$, $SD=.546$).

5) 정치사회적 의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구체적인 질문은 ①경제성장보다 국민 의견반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②국방예산을 줄여서 자연·환경 보존에 투입해야 하는지, ③경제성장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지, ④언론은 국가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야 하는지, ⑤경제적인 발전보다 인간적인 사회 추구가 더 중요한지, ⑥사회질서 유지 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우선인지, ⑦세금을 더 걷더라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는지, ⑧국가경쟁력이 다소 약화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는지, ⑨경제성장이 둔화되어도 공평한 소득분배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⑩개인의 가난은 개인 능력보다 정치사회체제의 문제인지 등이 그것이다. 각 항목 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Cronbach's $\alpha=.842$ 가 산출되어 항목 간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정치사회적 참여: 1=전혀 없다, 2=1번, 3=2번, 4=3-4번, 5=5번 이상

제시된 6개의 항목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3$ 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었다.

IV. 결 과

1.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표 1>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미디어별 정보습득 및 대인커뮤니케이션 수준

커뮤니케이션 유형	대인 커뮤니케이션 (M=2.20, SD=.76)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M=2.67, SD=.72)				
	부모와의 대화	형제/ 자매와의 대화	친구/ 선배와의 대화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		TV 이용	신문 이용	라디오 이용	인터넷 이용	시사주간지/ 잡지이용
평균	2.43	1.94	2.34	1.86		3.40	2.48	1.92	3.63	1.94
표준편차	1.02	1.02	1.08	.95		.99	1.17	1.01	1.09	1.01
ANOVA(F=370.52, df=3, 31434, p<.01)						ANOVA(F=4723.31, df=4, 40615, p<.01)				

Note: 각 변인은 5점 척도로 측정(1=전혀 하지 않는다, 5=매우 자주 한다).

우선, 정치사회적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소통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이용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이용의 정도가 어떤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대인관계별 그리고 미디어별 커뮤니케이션 양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별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별 이용 정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크게 대인 커뮤니케이션(M=2.20, SD=.76)과 매스 커뮤니케이션(M=2.67, SD=.72)을 비교했을 때,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치사회적 정보습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사회적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소통이나 정보습득의 통로로서 면대면 접촉보다는 미디어에 보다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면대면 대화 유형을 보면, 부모와의 대화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나 선배와의 대화 빈도가 높았다. 형제/자매나 선생님과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정치나 사회적 문제와 같은 공적 이슈의 경우 관련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며, 면대면 대화 기회가 많은 부모와의 대화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소년들의 미디어별 정치사회적 정보 습득 경로를 보면, 인터넷

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매스미디어인 TV 역시 자주 이용되는 매체로 분석되었다. 반면, 신문이나 라디오, 시사주간지/잡지의 경우 현저히 낮은 이용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TV나 인터넷의 경우 전반적인 미디어 이용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이슈들과 관련된 정보 습득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열독률이 떨어지고 있는 인쇄매체의 전반적인 이용추세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정치사회적 이슈 관련 정보습득을 위한 교급별 대인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이용 수준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대인 커뮤니 케이션 정도	전혀/매우 드물게 한다	83.7	80.4	75.3					전혀/보지 않는 편	16.6	17.9	12.4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용 정도	전혀/보지 않는 편	75.8	75.0	55.5
	가끔 한다	14.1	17.9	22.1	인터넷 이용 정도	보통 수준	30.2	30.4	27.5								보통 수준	21.0	23.2	36.0
	자주/매우 자주 한다	2.3	1.8	2.6		자주/매우 자주 보는 편	53.2	59.1	60.2								자주/매우 자주 보는 편	3.2	2.8	8.6
	전체 (N=7388)	3037	3080	1271		전체 (N=7388)	3037	3080	1271								전체 (N=7388)	3037	3080	1271
	Note: $\chi^2=47.79$, df=4, Sig.=.00, 2-tailed. 수치는 %																			
					$\chi^2=57.93$, df=4, Sig.=.00, 2-tailed. 수치는 %					$\chi^2=225.84$, df=4, Sig.=.00, 2-tailed. 수치는 %										

사회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관심과 행위를 유도하는 잠재적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다양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댓글 달기, 서명 운동, 집회 참석 등의 정치사회적 활동이 이러한 영향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 이용 유형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식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이용이 이들의 정치사회적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그러한 영향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3>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정치적 의식(진보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Beta	t	p
인구통계학적 특성(모형1)			
성별(남=1, 여=2)	.050	4.322	.00
교급/학년	.079	6.793	.00
가정경제 수준	.003	0.263	.79
$R^2=.008^{**}$			
대인 커뮤니케이션(모형2)			
부모와의 대화	.037	2.591	.01
형제/자매와의 대화	-.025	-1.642	.10
친구/선배와의 대화	.098	6.551	.00
학교선생님과의 대화	-.020	-1.443	.15
$R^2=.018^{**}(\Delta=.010^{**})$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모형3)			
TV 시청	.026	1.959	.05
라디오 청취	.000	.009	.99
신문 열독	.041	2.892	.00
시사주간지/잡지 열독	-.033	-2.265	.02
인터넷 이용	.088	6.374	.00
$R^2=.029^{**}(\Delta=.011^{**})$			

Note: $^{**}p<.01$

먼저, 응답자들의 정치적 의식 즉, 진보적 성향에 미치는 통제변인들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그리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자들은 보다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은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요 관심변인인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이용정도에 따른 정치적 의식변화는 크게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응답자를 둘러싼 다양한 대인관계 중 친구/선배와의 대화($Beta=.098, p=.00$)와 부모와의 대화($Beta=.037, p=.01$) 정도가 진보적 정치성향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 집단인 친구/선배와의 대화가 응답자의 정치적 의식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형제/자매나 학교 선생님과 대화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다.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주요 미디어별 이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진보적 성향은 강화되었는데 이 중 인터넷 이용($Beta=.088, p=.00$)이 가장 강력한 긍정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신문 열독($Beta=.041, p=.00$)과 TV시청($Beta=.026, p=.05$) 역시 진보적 성향과 유의한 긍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라디오 청취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으며 시사주간지/잡지 이용($Beta=-.033, p=.02$)의 경우 오히려 진보적 성향과 부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표 1>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사주간지/잡지와 라디오의 경우 여타 주요 미디어에 비해 이용 빈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해석에는 제한이 따를 것이다. 결국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친구/선배와 같은 또래 집단과의 대화가 그리고 미디어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이용이 청소년들의 정치성향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결과는 앞선 이용수준 분석결과와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의 경우 다른 미디어에 비해 가장 높은 이용 빈도를 보였고, 친구/선배 역시 부모와 함께 여타 관계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대화 빈도를 보이고 있다. 즉 특정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의존 정도가 높을수록 해당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미디어의 이용 정도가 해당 미디어의 영향력과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관계에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들(민영·노성중, 2011; 민영·주익현, 2007; 손영준, 2004; 하승태·이정교, 2011; Johnson & Kaye, 2004)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습득이 높을수록 성인 유권자

들은 보다 진보적(dovish) 성향을 나타낸다는 Althaus(1998)의 연구결과가 청소년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 어떤 형태로든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정보 습득과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러한 영향은 다분히 정치 이념적 특성을 띄고 있다 하겠다.

특정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해당 미디어의 영향력을 경험할 개연성을 높인다는 것은 매우 설득적이다. 나아가 정치사회적 정보습득 과정에서의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은 자신들의 정치의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의식 변화가 후속적으로 이들의 행위적 측면, 즉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당위적이다.

3. 커뮤니케이션 이용 유형에 따른 정치사회적 참여

정치사회적 정보습득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와는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가? 우선,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은 정치적 참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표 4〉).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모두가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정치의식 분석결과와 다른 점은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정도가 정치참여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진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치의식 분석에서는 부모와 친구/선배만이 유의미한 대화집단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정치적 행위 즉, 참여는 미디어를 통한 정보습득뿐만 아니라 면대면 대화를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전통미디어나 인터넷, 그리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등 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정치 참여가 기존의 선거투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최근의 논의들(Henn et al., 2002; McLeod, 2000; Rossi, 2009)에 주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정치참여 항목들(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의견 투고, 길거리 서명, 집회참석, 인터넷 게시물 달기 등)은 청소년층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다 타당한 함의를 지닌다 하겠다.

<표 4>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정치적 의식이 정치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Beta	t	p
인구통계학적 특성(모형1)			
성별(남=1, 여=2)	-.017	-1.418	.16
교급/학년	.046	3.929	.00
가정 경제수준	.034	2.934	.00
$R^2=.003^{**}$			
대인 커뮤니케이션(모형2)			
부모와의 대화	.060	4.256	.00
형제/자매와의 대화	.051	3.500	.00
친구/선배와의 대화	.172	11.819	.00
학교선생님과의 대화	.024	1.828	.07
$R^2=.066^{**}(\Delta=.063^{**})$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모형3)			
TV 시청	-.030	-2.294	.02
라디오 청취	.033	2.526	.01
신문 열독	.057	4.204	.00
시사주간지/잡지 열독	.096	6.754	.00
인터넷 이용	.134	10.098	.00
$R^2=.104^{**}(\Delta=.038^{**})$			
정치적 의식(모형4)			
진보적 정치성향	.043	3.817	.00
$R^2=.106^{**}(\Delta=.002^{**})$			

Note: **p<.01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4개의 관계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중 역시 친구/선배와의 대화(Beta=.172, p=.00)가 가장 강력한 정치참여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치 의식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층에게 보다 친숙한 인터넷 미디어(Beta=.134, p=.00)의 영향력

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여타 미디어 이용도 유의한 통계적 영향력을 보였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TV이용의 경우 오히려 정치 참여와 부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상미디어인 TV의 오락적 특성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적 정보와 같은 정보적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은 정치적 관여를 증대시키는 반면 비정보적 혹은 오락적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은 오히려 정치적 정보습득과 정치 참여를 저해한다는 연구결과(Bakker & de Vreese, 2011; Eveland et al., 2003; Shah et al., 2001)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TV이용 행태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의 TV이용이 예능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방송통신위원회, 2008)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치사회적 의식 역시 정치참여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다. 앞선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커뮤니케이션 이용 변인들을 통제한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변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치사회적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이 청소년들의 진보적 정치성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적극적인 정치 및 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 및 사회 문제에 관한 대화와 정보습득은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보다 차별적인 영향력이 탐지되었으며,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친구/선배의 또래집단과의 대화,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인터넷 이용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수준과 관련해서는 정치의식과 비교해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게시판 댓글 달기나 인터넷 서명 운동 등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현상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과 참여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인들을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유형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논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먼저 〈연구문제 1〉에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정보습득 및 의사소통과 관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이용 수준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응답자들은 정치 및 사회 문제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위해서 면대면 대화보다는 다양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수단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대면 정치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대인관계차원에서 분석했을 경우, 학교 선생님이나 형제/자매에 비해 부모나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는 TV나 라디오 혹은 인쇄매체 등 전통적 미디어에 비해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사회적 정보접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뉴미디어에 대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우호적 태도와 연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교급별 분석에서는 교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정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이 여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비해 현격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이용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식 수준을 알아보았는데, 커뮤니케이션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 성향의 정치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터넷 이용과 친구/선배와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정치사회적 정보습득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높은 인터넷 이용수준과 함께 또래집단과의 접촉기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이용이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문제 3〉에서는 청소년들의 커뮤니케이션 이용의 유형이 이들의 정치사회적 참여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었다. 정치의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이들의 정치적 참여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전통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등 모든 커뮤니

케이션 유형들을 통해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면대면 접촉 중에서는 친구/선배와의 대화였고 미디어 이용 중에서는 인터넷이 역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의식에 비해 정치참여에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다양한 미디어들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다만 TV시청의 경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부정적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TV이용이 오락적 목적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영향의 과정에서 정치의식은 중요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수준은 청소년들의 진보적 성향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치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이며 정치의식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겠다.

제도적 정치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정치 및 사회문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전통미디어에 비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양식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참여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써 인터넷을 위시한 뉴미디어의 이용을 지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식, 즉 대인 커뮤니케이션, 전통미디어 이용, 인터넷 이용의 비교분석에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면대면 대화나 TV, 신문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도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이 관찰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양적 측면이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정작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수단의 매체적 특성과 함께 정치적 의사소통의 절대적인 양이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를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셈이다. <표 4>에서 보이는 다양한 대인 및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유의한 영향력들이 이를 잘 예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들은 미래 한국정치의 중심이며 정치문화를 이끌어 갈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현실에 참여하게 되는지는

민주주의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적 정보습득과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참여를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한편, 이차적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인 이용목적 혹은 동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Putnam(1995; 2000)이 주장했듯이, 미디어의 이용목적은 그 영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미디어 이용은 오히려 수용자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약화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표 2>의 교급별 커뮤니케이션 이용분석에 적용된 교차분석의 경우, 실제적인 개별 셀 간의 차이에 의해 통계적 유의성이 도출되었다기보다 과도한 분석데이터수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급별 커뮤니케이션 양은 매우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 김예란 · 김효실 · 정민우(2010). 광장에 균열내기: 촛불 십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2권, pp. 90-109.
- 김호기(2008. 5. 14). 쌍방향 소통 '2.0세대'. *한겨레신문*.
- 류준렬(2006).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연구보고 06-R17).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근영(2008. 11. 8). 온라인 승세잡은 오바마 캠프 오프라인 대결은?. *시사IN*, 제60권.
- 박소라 · 윤성옥 · 양지윤(2004). 어린이와 인터넷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소라(2005).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4호, pp. 166-224.
- 방송통신위원회(2008). 2008년 TV시청행태 조사.
- 민영 · 노성중(201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 참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4호, pp. 285-308.
- 민영 · 주익현(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적 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6호, pp. 190-217.
- 손영준(2004).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2호, pp. 240-266.
- 하승태 · 이정교(2011). 미디어 이용량과 선호 콘텐츠 유형이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1호, pp. 413-434.
- 유선영(2008). 10대의 미디어 이용, 사회적 소통과 현실인식. *미디어인사이트*, 제7권, pp. 2-37.
- 이종원(2009). 청소년 사회의식 조사. 연구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0년. 자료번호: A1-2009-0036.
- 이창호 · 정의철(2009).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 사회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3호, pp. 457~491.
- 이효성(2008).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참여군중(smart mobs)의 정치참여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4호, pp. 203-219.
- 정태환(2005). 인터넷이용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웹 사이트.
<http://isis.kisa.or.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Althaus, S. L.(1998). Information effects in collective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3, pp. 545-558.
- Bakker, T. P., & de Vreese, C. H.(2011). Good news for the future? Young people, internet us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38 No. 4, pp. 451-470.
- Bennett, W. L., Wells, C., & Rank, A.(2009). Young citizens and civic learning: Two paradigms of citizenship in the digital age. *Citizenship Studies*, Vol. 12 No. 2, pp. 105-120.
- Berman, J. & Weitzner, D. J.(1997). Technology and democracy. *Social Research*, Vol. 64, pp. 1313-1319.
- Brackertz, N., Zwart, I., Meredyth, D., & Ralston, L.(2005). *Report: Community consultation and the ‘Hard To Reach’: Concepts and practice in victorian local government* [online]. Swinburne University.
- Collin, P.(2008). The Internet, youth participation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young people’s political identities in Australi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1 No. 5, pp. 527-542.
- Dahlgren, P.(2003). Reconfiguring civic culture in the new media milieu. In J. Corner & D. Pels (Eds.). *Media and the Restyling of Politics* (pp. 151-170). Sage: London.
- Dahlberg, L., 2001. The internet and democratic discourse: Exploring the prospects of online deliberative forums extending the public spher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Vol. 4 No. 4, pp. 615-633.
- Delli Carpini, M. X.(2000). Gen.Com: Youth, civic engagement and the new information environment. *Political communication*, Vol. 17, pp. 341-349.
- Dunleavy, P.(1996). Political behavior: Institutional and experiential approaches.

- In R. Goodin & H. D. Klinge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pp. 276-294).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Eveland, W., Shah, D., & Kwak, N.(2003). Assessing causality in the cognitive mediation model. *Communication Research, Vol. 30 No. 4*, pp. 359-386.
- Harris, A.(2008). Young women, late modern politics, and the participatory possibilities of online cultures.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1 No. 5*, pp. 481-495.
- Harris, A., Wyn, J., and Younes, S.(2008). *Rethinking youth citizenship; Identity and connection*. Research Report, Melbourne: Youth Research Centre.
- Henn, M., Weinstein, M., & Wring, D.(2002). A Generation apart? Youth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Britain.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 No. 2*, pp. 167~192.
- Johnson, T. J., & Kaye, B. K.(1998). Cruising is believing?: Comparing internet and traditional sources on media credibility measur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75 No. 2*, pp. 325~340.
- Johnson, T. J., & Kaye, B. K.(2004). Wag the blog: How reliance on traditional media and the internet influence credibility perceptions of weblogs among blog user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81 No. 3*, pp. 622-642.
- Juris, J.(2008). Performing politics: Image, embodiment, and affective solidarity during anti-corporate globalization protests. *Ethnography, Vol. 9 No. 1*, pp. 61-97.
- Juris, J. & Pleyers, G.(2009). Alter-activism: Emerging cultures of participation among young global justice activists.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2 No. 1*, pp. 57-75.
- Lin, W. Y., Cheong, P. H., Kim, Y. C., & Jung, J. Y.(2010). Becoming citizens: Youth's civic uses of new media in five digital cities in East Asia.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25 No. 6*, pp. 839-857.
- Lewis, D.(2005). *Online communities of interest for young people*. Conference

- pap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aging Communities, Brisbane, Australia.
- Livingston, S., & Bober, M.(2004). *UK children go online: Listening to young people's experiences*.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Livingstone, S., Bober, M., & Helsper, E. J.(2005). Active participation or just more information? Young people's take-up of opportunities to act and interact on the interne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 8*, pp. 287-314.
- McLeod, J. M.(2000). Media and civic socialization of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27*, pp. 45-51.
- Montgomery, K., Gottlieb-Robles, B., & Larson, G. O.(2004). *Youth as e-citizens: Engaging the digital generation* [online]. Centre for Social Media, American University.
- Norris, P.(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elps, E.(2004). Young citizens and changing electoral turnout, 1964-2001. *Political Quarterly, Vol. 75*, pp. 238-248.
- Phelps, E.(2005). Young voters at the 2005 Britain general election. *Political Quarterly, Vol. 76*, pp. 482-487.
- Putnam, R. D.(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 6 No. 1*, pp. 65-78.
- Putnam, Robert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oberts, M., Wanta W. & Dzwo, T.(2002). Agenda setting and issue salience on-line. *Communication Research, Vol. 29 No. 4*, pp. 452-465.
- Rossi, F. M.(2009).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this the end of generational cleavage?. *International Sociology, Vol. 24 No. 4*, pp. 467-497.
- Russell, A.(2004). The truth about youth? Media portrayals of young people and politics in Britain. *Journal of Public Affairs, Vol. 4*, pp. 347-354.

- Shah, D., Kwak, N., & Holbert, R.(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Vol. 18, pp. 141-162.
- Simpson L., Wood L., Stockwell M., Leggett, S., & Penn, D.(2005). *Making connections: A capacity building approach to health and wellbeing*. Conference pap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aging Communities, Brisbane, Australia.
- Vromen, A.(2007). Australian young people's participatory practices and internet us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Vol. 10 No. 1, pp. 48-68.
- Sotirovic, M., & McLeod, J.(2001). Valu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Vol. 18 No. 2, pp. 273-300.
- Zukin, C., Keeter, S., Andolina, M., Jenkins, K., & Delli Carpini, M. X.(2006). *A New engagement? Political participation, civic life, and the changing American citiz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Use of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y Adolescents on Their Political Perceptions and Participation*

Ha, Sung-Tae** · Lee, Jung-Gyoe***

Recently, adolescents are participating more actively in politics via the Internet. This study investigated interne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by adolescents on political issues and analyzed the impact it had on their political perceptions and participation. Overall, the respondents relied more on mass communication th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for political communication. The communication level also had positive effects on their ideological propensity toward liberalism. Finally, adolescents' political communication promoted their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These findings will provide basic data for anticipating and understanding political perceptions and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s,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participation, mass communica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ternet

투고일 : 12월 13일, 심사일 : 3월 5일, 심사완료일 : 3월 5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Kyung Hee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ship in 2010 (KHU-20100431).

** Dong-A University

*** Kyung Hee University